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 이민영, 김동수, 김중환,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기도 제목
1. 모우아까(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최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 공동의회 공고
일시 : 2017 년 12 월 17 일(주일) 예배 후
안건 : 2018 년 보드원 선출
- 성탄주일예배: 12 월 24 일(주) 오후 12 시. 자녀들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송구영신예배: 12 월 31 일(주) 밤 11 시

2017 년 12 월 안내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 석 동훈 형제 / 시편 126 편

이번 주 친교 : 김 현정 권사 / 이 현주 집사

다음 주 친교 : 전 영자 권사 / 이 미경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분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분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 오전 6 시 분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50 호

2017 년 12 월 10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 반주자 : 박 양희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2 월 10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104 장(통 104 장) 다함께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표기도 (Invocation)	시편(Psalms) 85:1-2, 8-13 서 현숙 권사
찬양 (Choir)	"Gloria"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Offering and Pastoral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스(Ezra) 3:10-13; 학(Hag) 2:1-9; 인도자 스(Zech) 8:9-17; 스(Ezra) 6:14-16, 21-22
설교 (Sermon)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315 장(통 512 장) 다함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12. 3. 주일 설교 요약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겔 1:26-28; 11:22-25; 43:1-5)

에스겔서는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와 영광을 세 번 본 장면들이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여호와와 영광을 본 것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할 나이인 30 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적국의 땅, 우상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도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여호와와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포로의 땅, 수치의 땅에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성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리어 그곳의 모습을 봅니다. 활발한 종교행위와 동시에 우상에게 절하는 가증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 지성소를 등지고 영덩이를 치켜든채 해를 향해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지성소에 머물던 여호와와 영광이 떠올라 성전 위에 멈췄다가 감람산을 지나 동쪽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 성령님이 떠나신 것도 모르고 예배행위를 계속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전과 나라는 서있었지만 여호와와 영광이 떠나갔으니 멸망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후의 몇 장들은 참으로 읽기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함과 그 위에 내린 징벌들이 별거벗은 창녀로, 시퍼렇게 날 선 칼을 빼든 모습으로, 뼈가 물러지도록 끓여대는 가마솥으로 묘사됩니다.

끔찍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거짓 평강을 외치는 값싼 위로도 있습니다. 곧 무너질 담에 걸에만 회칠을 하며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갈라지고 찢어지는데 괜찮다며 위로합니다. 갈라진 벽 앞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럴듯한 위위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한 고통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평강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내세우는게 아니라 깨진 세상을 함께 아파하며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가운데 참된 성탄의 은총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생명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18:23).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잃은 양을 찾으실 것입니다(34 장).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34:23).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이제 물로 씻어 새 영을 부여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 새 심령으로 회복시키십니다(36:24-28). 비전이 충만한 선지자 에스겔도 차마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하지 못했던 마른 뼈들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전에 들이십니다(37 장).

이제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된 것을 봅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약속의 땅이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섬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와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범죄함을 감당하시고, 은혜와 진실함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삼마의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영광이 되셨습니다.

에스겔은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 땅을 소성시키고 열매를 맺는 나무, 치료하는 나무를 내는 환상을 봅니다. 사도요한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동일합니다(계 22:1-2). 예배하는 심령과 교회에 높이 올려진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호와와 영광이 세상에 비치고 그의 은혜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으며 열방을 치료하는 사랑이 흘러갑니다.

